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송재소



몇 년 전 어느 법학과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이 법과대학에 올 필요는 없다."

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법학관 건립 등의 시설 투자에만 수백억 원을 들인 대학이 있고, 전임 교수를 40여명 이상 확보한 대학도 있다.

물론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의 시비(是非)를 가려 정확히 판결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법조인은 높은 지적 수준을 지녀야 한다.

가 하면 대학의 총동문회, 법과대학 동문회도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가히 '로스쿨 광풍(狂風)'이라 할만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인문학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의 법과대학의 당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로스쿨을 위한 전용 건물은 물론이고 제2, 제3의 법학관을 짓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학생을 위하여 40, 50명의 교수를 둔다면 학문 간의 불균형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범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2008년 3월에 있을 최종 선정을 앞두고 각 대

범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범행은 최소한의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은 높은 지적 수준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의 법과대학의 당치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로스쿨을 위한 전용 건물은 물론이고 제2, 제3의 법학관을 짓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학생을 위하여 40, 50명의 교수를 둔다면 학문 간의 불균형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적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또 로스쿨 유치가 대학의 위상 제고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또 한 가지, 현재의 추세대로 로스쿨을 전문화, 특성화 시킨다면 자칫 기능인만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

법관은 단순한 기능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법관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체이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세계의 제(諸)국면(局面)은 법조인의 직용만으로 그 시시비비(是非非非)를 다 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법조인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만 그래도 모자라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법학도 인문학적 소양 갖춰야

"범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의 기계적 적용에 비중을 두는 기능인을 배출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학도 하루 빨리 교육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사고하고 인간다운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듯이 기초학문의 토대가 없는 응용학문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도(法學徒)도 기초학문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문화수도 광주' 선포...실천이 관건이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보고회'가 8일 개최됐다. '문화수도 광주'에 대한 대국민 선포식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2월 '문화수도 육성'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동한의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접고 사업 추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줄이고 문화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광주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종합계획에는 랜드마크 보완 등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제까지 지엽적인 문제로 허송세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수도 종합계획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는 2012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비롯해 2023년까지 광주시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총 예산만도 5조3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단일 문화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지역의 정치·문화·사회적인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국가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체전, 지역사회 도약의 계기로 삼자

제 88회 전국체육대회가 8일 광주에서 개막됐다.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이후 14년만에 다시 열린 광주체전의 슬로건은 "꿈도 함께! 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 선수단에게 감동을 안겨 줄 문화도시 광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주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제 88회 최대 규모인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와 임원 등 3만여명이 참석한 14년만에 다시 열린 광주체전의 슬로건은 "꿈도 함께! 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

일부에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국체전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한국체육의 기폭 산실이다.

전국체전은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된다. 사회간접자본은 이미 상당부분 확충됐다.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한층 높일 수도 있다. 광주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드시 유치할 계획이다.

전국체전 기간동안 광주를 찾는 외국인인 10만명에 달한다. 광주는 문화도시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외에도 관광업, 전자, 자동차 등 첨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국민들에게 광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체전의 성공 여부는 시민에게 달려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고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인절과 평화가 넘치는 도시를 부각시켜 일등 광주, 일등 시민으로 대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광주체전은

체전은 또 전 국민의 축제다.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체육대회에서 벗어나 개성있는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대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광주체전에

無等鼓

골프는 매직 스포츠라 불린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골프의 핵심은 결코 인간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게임의 특성이자 바로 그 점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더 채우려는 인간 본능, 즉 욕망이 자극하기에 사람들은 골프채를 놓지 못한다.

면 기를 퍼지 못하던 로레아 오초아에게 1인자 자리를 물려준지 오래됐다. 그사이 한국여자골프계에서도 골프의 의외성이 통용되지 않는 인물이 탄생하고 있다.

또 골프에서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는 표현도 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자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의미이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한 스펀스탑은 '필드에서 늘 무뎠다'는 지적에 대해 '마음은 항상 웃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펀스탑은 우승으로 삼고 배우며 자란 신지에도 피나는 노력을 했고 '미소 천사'라는 별명답게 필드에서 늘 쾌활한 표정이다.

골프의 '의외성'



다. 이러한 의외성 또한 골프에 빠지게 하는 큰 매력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선수가 타이거 우즈다. 최근 5~6년동안 세계 여자골프계를 완벽하게 석권한 애니카 소렌스탐도 예외가 통하지 않는 선수다.

다. 주말골프들도 실력이 비슷하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프로경기에서도 누가 우승할 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의외성 또한 골프에 빠지게 하는 큰 매력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선수가 타이거 우즈다. 최근 5~6년동안 세계 여자골프계를 완벽하게 석권한 애니카 소렌스탐도 예외가 통하지 않는 선수다.

다. 이러한 의외성 또한 골프에 빠지게 하는 큰 매력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선수가 타이거 우즈다. 최근 5~6년동안 세계 여자골프계를 완벽하게 석권한 애니카 소렌스탐도 예외가 통하지 않는 선수다.

NGO 칼럼

오경만



모두의 관심 속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2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의 두 정상은 우리 민족의 기대와 세계적 관심에 부합하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 남북 정상선언)에 합의했다.

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2007 남북 정상선언은 지난 2000년에 합의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고 또 새

비로소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국제사회에서도 지지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국제적인 여건까지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올 연말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가 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이젠 실천이다

를 함께 발전시킨 역사적인 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언이었다고 한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자 수석대표 회담 ▲6자 외무장관 회담 ▲라이스의 방북 ▲북중·북러·북일 등의 양자 간 회담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우리는 ▲중선선언 추진 ▲당국자 간 회담의 총리급 격상 ▲서해협화협력지대 구성 ▲서울~백두산간 직항로 개설 ▲남북고교협력 확대 등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대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벌써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중선선언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라이스의 방북이 이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북미 정상회담도 예측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 발전하게 된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우리 언론이 간과하고 있지만 3일 베이징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됐다.

60년 통한의 분단시대가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다. 분단을 넘어 펼쳐질 통일시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에서는 북핵 불능화에 대한 북한 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출됐고 이

이제 우리에게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 선언의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통일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6·15선언실천남측위 정책교육국장)

양식장 폐부표 바다오염 심각...재질 바꿔 오염 막아야

친구들과 함께 남해 바닷가를 다녀왔는데 바다에 동등 떠다니는 흰 부표들이 너무 많았다.

리다. 지나가는 어선들의 스쿠류에 걸려 잠깐 부서진 채로 바다 위에 떠다니면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어인 줄 알고 먹고 폐사하기 때문이다. 부표 잔해가 해류를 따라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바다를 어지럽히게 되면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폐부표 수거 및 처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거도 용이하고 바다 오염을 막는 재질로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영한·광주시 동구 총장조

특히 어민들에게 떠다니는 부표는 골칫거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인도 코뿔소와의 조우



최근 동남아 지역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이번 여행은 좀 특별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동남아 지역 동물들을 찾아보고 열대 정글을 체험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인간이 설정한 보호 지역, 동물원에서만 가능하다.

인도 코뿔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두터운 갑옷을 잘 갖추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피부 주름이 발달해 이런 독특한 무늬를 만들었다.

아프리카 코뿔소와 달리 이들은 외뿔, 뿔이 하나다. 그런데 하나 있는 뿔마저도 약용이라고 베어 먹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조그마한 뿔 하나가 이들을 멸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얼심히 카메라를 들이댄 덕분에 코끼리·팬더·인도 코뿔소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 사진을 많이 찍어 올 수 있었다.

아프리카 코뿔소와 달리 이들은 외뿔, 뿔이 하나다. 그런데 하나 있는 뿔마저도 약용이라고 베어 먹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조그마한 뿔 하나가 이들을 멸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인도 코뿔소의 경우 아프리카 2종, 아시아 2종의 코뿔소들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듯 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지구가 너무 좁아진 것일까.

인간들은 지배자로서 결코 자기보다 협소한 동물들이 함께 치는 걸 용서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열대 야생에서 이들

◇ 최충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질병 가족력 있다면 5~10년 일찍 정밀 건강검진을

최근 회사 직원에게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뒤 늘 조심하면서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관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유방암은 무려 8배나 발병위험이 높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당뇨병은 가족력이 가장 확실한 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부모가운데 한사람이 당뇨병을 앓았다면, 자녀들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체력관련뿐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가족의 질병내력, 즉 가족력을 파악해 신경쓰는 것도 필요하다.

집안에 가족력 질병이 있다면 남보다 5년~10년 정도 일찍 정밀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선천 중 질병이 있었을 경우 그것이 후대에 전해질 확률은 당뇨병은 1.7배,

▲강명순·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